



방송현장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총평

： 매체 환경 변화 속 방송의 필요성이라는 역설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장

목차

- 1 들어가며
- 2 수상작 그리고 경쟁작
- 3 나가며;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발견한 방송의 필요성이라는 역설

요약

작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심사를 시작했지만,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만큼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작품상 부문에 출품된 총 244편의 작품은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29편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고, MBC가 10년 만에, 드라마가 8년 만에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심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방송사 간 제작 역량이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 제작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완성형 작품이 많았고, 예능과 교양 출품작은 인문학적 가치에 도전하는 신선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지역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대상 경쟁에서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며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어려운 방송 환경에서도 치열하게 도전하고 풍성한 성과를 만들어 낸 방송인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1. 들어가며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제62회 방송의 날이 더 궁금하고 기다려진다.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도 궁금하지만,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내는 메시지에 어떤 문제의식과 방향성 그리고 얼마나 큰 진정성이 담길지도 기대된다. 방송산업은 이미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매체 환경이 변화했다는 말은 방송의 위상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방송이 현재를 어떻게 버텨내고, 어떠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는 방송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심사는 작금의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방송인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심사위원으로서 교양, 오락, 드라마 장르 콘텐츠들의 제작 상황은 어떠하고, 방송인들이 각 장르가 추구하는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의 기능 약화에 탄식하기보다는, 역설적이랄까, 오히려 방송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제52회 한국방송대상은 작품상 24개 부문, 개인상 20개 부문으로 심사되었다. 작품상에는 총 244편이 출품되었고, 개인상에는 56인이 추천되었다. 작품상에 출품된 244편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69편이 본심에 올랐다. 가장 많은 본심 진출작을 기록한 방송사는 KBS(13편)이고, 뒤이어 MBC(9편), EBS(9편), SBS(7편)가 위치했다. 7명의 본심 심사위원의 뜨겁고 공정한 논쟁을 통해 29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EBS와 SBS는 각 4편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KBS, MBC, TBC, TBN이 각 3편의 본심 수상작을 배출하는 영광을 얻었다. 본심에 작품을 올렸던 38개 방송사 중에서 총 19개 방송사(공동제작 포함)가 수상작을 배출하였다.

이번 심사는 주제, 시의성, 사회적인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한 작품성, 새로운 형식에 대한 도전 정신, 방송의 역할에 대한 충실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이외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결과로 드러나는 특징은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첫째는 방송사 간 제작 능력의 상향 평준화, 둘째는 정부 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다. 예년에 비해 교양, 다큐멘터리, 보도 장르 출품작의 수준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드라마 장르는 완성형 작품들이 많았는데, 특히 지역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 성과가 의

미 있었다. 오락 콘텐츠의 변화도 뚜렷했다. 안정적 포맷으로 장기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관찰, 교육, 토크 등의 포맷이 다양하게 변주하여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심사에 긍정적 시사점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정부의 적극적인 제작지원사업의 뒷받침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지역은 물론 중앙 방송사들이 출품한 작품 중에서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이 다수였는데, 이는 방송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비관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작품을 기획/제작하는 방송사의 역량만큼은 명백히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2. 수상작, 그리고 경쟁작

1) 수상 확률 100%, TBC : 지역 방송사의 제작 경쟁력 재조명

최근 전반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품질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제52회 한국방송대상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제

[그림 1]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자 포스터 및 사진



출처 : 한국방송협회 보도자료

작비에 의존하는 작품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발품을 팔아서 수확한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방송 콘텐츠 본연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작품들이 여전히 많았다. 특히 본심에 올린 3개 작품 모두 수상하는 기록을 세운 TBC는 뉴스, 시사 보도와 오락 부문에서 시의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였다. 지역뉴스보도 부문에서는 “헬세 쏟은 DTL, 알고 보니 의원님 왕국” 제목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지역 방송사의 존재 이유를 재삼 보여주었다.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되어 세금 20억 원을 투입해서 설립한 DTL(택시 근로자 복지센터)의 사유화 문제를 발로 뛰어 심층적으로 보도한 성과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시사보도 부문에서 TBC가 보도한 “무너진 고향! 경북산불 149시간 보고서”는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초토화한 대형 산불 현장을 10여 개의 키워드로 나눠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보도 특집이다. 특히 산불 현장을 살살이 훑으며 생생한 인터뷰와 영상을 담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이 좋았다. 치열한 경쟁작이었던 MBC강원 영동의 “1.9도 오른 동해, 바닷속에 뛰어든 기자”는 14개월 동안 수심 40m 안팎을 드나드는 극한 취재를 통해 기후 변화의 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방송 저널리즘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오락TV 부문의 경쟁도 치열했다. 이 부문 수상작인 TBC의 지역성 높고 참신한 <학교가>와 경쟁한 부산MBC의 한일 공동프로젝트 <오늘은 뭐 묵지?> 또한 지역방송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교양TV 부문에서 수상한 KNN의 <사라진 미>, MBC충북과 대전MBC가 공동 제작한 <인생내컷>에 대한 평가도 의미 있다. <사라진 미>는 UHD ‘드라멘터리’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지역 식재료와 먹거리를 소재로 지역의 역사와 인간을 접목하는 도전이 깔끔하게 성공적이었고, <인생내컷>도 점점 사라져가는 휴먼다큐멘터리 장르의 가치를 담담한 연출과 섬세한 카메라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지역방송사들의 노력은 오히려 중앙 방송사들이 소홀히 하는 장르와 주제를 끈질기고 진정성 있게 지켜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여전한 방송의 큰 물결, 다큐멘터리 : G1과 울산MBC가 올린 큰 파도

어찌 보면 방송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번 지역TV 다큐멘터리 부문에는 좋은 작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부문 수상은 G1의 <경계 탐구 파노라마 세계의 벽> 7부작과 울산MBC의 신라-유라시아 1,300년 문명 교류 최초 탐사 UHD 3부작 <바실라>에게 돌아갔다. 울산MBC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오만산 유향과 동남아산 침향, 송림사 전탑의 서역 유리잔 등이 페르시아와 신라 간 교역의 근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취재와 국내외 기록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부분적으로 고증이 더 필요해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8세기 신라-유라시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집요한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G1은 벽이라는 건축물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창의적인 기획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강원도 지역이 품고 있는 분단이라는 지리적 주제가 G1의 장기간에 걸친 취재와 촬영으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는 인문학 결과물로 다듬어진 성과라고 평가한다. 두 작품 모두 대상 후보작 선정에서도 논의되었을 만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이 두 작품 모두 정부 제작지원사업 선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제작비 지원과 제작기간, 투입 인력, 주제 면에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출품한 <죽음의 바당> 2부작도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해 피폐해지는 바다 환경 문제를 신랄하게 카메라에 담아낸,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3) 싸이클링 히터, EBS

한국방송대상 단골 수상자는 단연 EBS가 아닐까? 제5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EBS는 교양, 음악 구성, 오락, 다큐멘터리 각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미 EBS 다큐멘터리는 세계적인 권위를 얻고 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거의 모든 장르에서 높은 제작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공영방송의 위상/필요성을 재삼 각인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사

회공익TV 부문에서 수상한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6부작 다큐멘터리는 시의성, 주제 의식, 구성 방식 면에서 모두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이초 사건이라는 비극에 직면해서 교사-학부모-학생 간에 어떻게 교육과 교권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담담한 서술이 큰 공감 대를 만들어 내면서, 왜 다큐멘터리 장르가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생활정보TV 부문의 수상작인 <취미는 과학>, 연예오락TV 부문의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대중적인 호기심을 충분히 끌어내면서도 EBS의 성격이 잘 묻어난 좋은 기획이다. <취미는 과학>은 어려운 소재를 친근하게 다루면서, 세트 구성이나 화면구성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연출의 역량이 특히 돋보였다면,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富)의 문제를 철학적인 관점뿐 아니라, 실용적이고도 사회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획/연출의 예리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EBS가 교양, 오락,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모두 수상작을 배출한 것은 의미 있는 기록이다. 방송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최근 방송산업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어떤 구조를 갖춰나가고, 어떤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 특히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방송 콘텐츠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있어, 방송의 역할에 대한 진정성과 함께 기획의 중요성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매체 환경에서 방송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4) 방송 본연의 역할 : 보도와 교양 부문 수상작의 트렌드

방송의 기능이 약화하는 데 결정적인 타격을 미친 장르가 바로 보도와 교양이다.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장에 이어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교양 콘텐츠를 방송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52회 한국방송대상에 출품된 보도, 교양 부문 작품들은 방송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의 성공 사례를 대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양 부문에서 수상한 MBC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다큐멘터리 <한강이온다>는 빨 빠른 기획과 시의성, 필요성 등에서 아주 돋보였는데,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시기적 우연의 발생과 함께 1948년 제주, 1980년 광주라는 독특한 한국의 역사와 한강 작가의 문학성을 깊이 있게 연결하는 연출자의 안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부문으로 출품된 KBS <다큐 인사이트> “파이팅은 지지 않아!”는 지원 부문의 적합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심사위원 대부분의 눈시울을 적실만큼 감동적인 소재와 인간적인 터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체를 앞둔 시골 초등학교 배구부를 1년 동안 동행 취재하면서 일곱 소년의 빛나는 시절을 담아내는 시도는 방송이기 때문에 조명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일상이고 현재이다.

뉴스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MBC <뉴스데스크>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 보도는 방송에서 약화하고 있는 속보성이 빛나는 작품이지만, 최초 보도라는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노상원의 역할이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의 진위나 실현 여부에 대한 심층 접근이 결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시사보도TV 부문 수상작인 KBS의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 보고서” 2부작은 심층 취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빛을 발한 작품이다. 2024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동체 착륙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등 35개를 확보하여 원근 투시도법을 활용한 영상 측량을 해서 사라진 4분 7초의 비행 기록을 복원하는 성과는 참신하고 의미 있었다. 이 작품은 방송 저널리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이유로 방송대상으로 장시간 논의되기도 했다.

EBS <다큐프라임> “어느 물리학자의 이상한 하루”는 최근 인문학적인 소재를 즐겨 다루는 EBS 다큐멘터리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참신한 수작이다. 하지만 다큐멘터리TV 부문의 수상작은 MBC 경남의 <엄마의 말뚝>이 차지했다. 윤일병 사망 사건 10주기를 맞이하여 군 인권의 최전선에 섰던 주역들을 기록에 담고, 유족 간 연대가 만들어 낸 군대의 변화를 조명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제의식을 선택하는 시사성, 시의성 그리고 심층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탐사 정신은 방송 플랫폼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정과 객관의 경계는 전적으로 방송인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작금의 변하지 않는 방송 매체의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림 2]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포스터



출처 : MBC 홈페이지

5) MBC, 드라마로 10년 만에 왕관을 쓰다

한국방송대상에서 드라마 장르의 대상 수상 기록은 2017년 KBS <임진왜란 1592> 이후 8년 만이고, MBC의 대상 수상은 2015년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이다. 드라마TV 부문 후보작은 SBS의 <보물섬>과 <지옥에서 온 판사>, 그리고 MBC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3편이었다. 3편 모두 장르성이 강한 작품으로서 스릴러, 판타지, 미스터리, 느와르, 서스펜스 등의 장르를 잘 버무린 수작들이다. 특히 SBS의 <보물섬>은 주인공 중심의 스토리 전개 형식에서 진전하여, 다양한 배역의 이야기를 마치 주말연속극과 유사한 형식으로 엮으면서 강한 흡인력을 보여준 작품이었고, 아직 방송에 충성도가 높은 4~50대 이상의 시청자들을 겨냥하여 높은 시청률을 얻은 작품이다. 글로벌 OTT 소비자와 내수시장의 시청자 사이에서 드라마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미에서, SBS의 <보물섬>은 MBC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와 대상 선정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웰메이드 드라마다. 드라마 제작자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부단히 학습해서 완성한 소위 ‘한국형 스릴러’의 전형에 가까운 작품으로, 그동안 글로벌 OTT의 선호도에 맞춤형으로 생산되던 장르의 드라마다. 주제로부터 발생하는 강한 갈등 요소, 묵직하게 던지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도덕의 가치, 감정선을 잘 이끌어가는 연기 호흡, 조명과 카메라가 포착하는 섬세한 인간 심리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느린 스토리 전개와 너무 어두운 조명 디자인은 비판의 여지도 남겼다. 여타 방송 장르에 비해서 제작의 복잡성이 높은 드라마 장르에서 이토록 섬세한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은 K-콘텐츠의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3. 나가며;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발견한 방송의 필요성이라는 역설

지금같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성 있는 수준작을 만들어 낸 방송인들에게, 그리고 제53회(2026년) 한국방송대상을 목표로 지금도 현장을 누비고 있을 방송인들 모두에게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방송 보도는 공정을 확보해야 하고, 드라마는 인간을 탐구해야 하고, 오락은 트렌드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다큐멘터리는 깊이 있는 취재로 새로운 지식과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다른 방송사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매체와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와 의미 없는 웃음은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었다.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심사를 통해 매체 환경은 변했지만, 방송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열악해진 방송 환경으로 인해 방송의 기능이 위축되는 상황이 오히려 방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설을 마주하게 했다. TBC가 보여준 환경 감시의 사명과 지역 친화적 역할, EBS를 통해 확인한 공영방송의 무게감, G1과 울산MBC가 자극한 지적 탐구의 희열, KBS를 통해 오랜만에 느껴본 감동, SBS가 제시한 방송 드라마의 새로운 방향성, MBC를 통해 새삼 확인한 K-콘텐츠의 위상. 이것들은 방송이 향후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할지라도, 방송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실감하게 했다.

앞으로 방송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튜브나 OTT에서 관심을 두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는 언제나 방송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단순한 제작지원사업을 넘어서, 방송산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 거버넌스 이슈에 힘들되어 방송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송인들은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더 치열하게 도전하기를 바란다. 방송의 필요성은 방송인 스스로가 제시해야만 한다. 제53회(2026년) 한국 방송대상을 위한 도전에 방송인 모두가 진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